

인공지능과 인간 자유의 미래

손현주(전북대)

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의 목적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인공지능의 일상화에 따른 인간의 자유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오늘날 사회는 데이터 과학의 등장과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인간의 의사결정의 각 분야에서 구체화되면서 인공지능이 사회의 각 분야 및 일상생활에 개입하고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

인공지능의 일상화와 그에 기반한 '알고리즘 인생'은 우리가 의사소통하고, 일하고, 움직이고, 학습하는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다. 디지털로 연결된 컴퓨터가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인간이 무엇을 공부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어느 당에 투표할지 등을 인공지능이 결정하게 한다면 인간이 고유한 개체로서 인간 자신에 의한 감정과 직관이 사라지고, 인간 자신을 위한 결정이 결여되어 인간의 권위는 소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알고리즘의 발달은 인간의 마음, 감정 등을 인간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어서 모든 사회제도와 인간은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시킬 수 있다. 생체측정 데이터와 컴퓨팅 능력이 결합하여 실현되면 알고리즘이 인간의 욕망과 의사결정을 해킹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알고리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자신의 의견과 감정이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경제와 사회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더 공정하고, 안전하고, 포용적이고, 정보를 주는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게 되어 인간의 자유를 변화시키고, 인간이 자신의 삶과 전체로서 인간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인 자유에 대한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다.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의 자유가 확대될 것인가 아니면 침해할 것인가? 기계의 의존하는 인간의 사고방식과 습관이 증가하면 자율적 존재로서 인간의 권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인공지능이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먼저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영향을 구조적 측면, 정보 접근성, 인간 능력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할 것이다. 반면에 자유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기술 결정론적 · 철학적 ·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 자유의 역사를 자유와 자연의 대립, 자유와 권위의 충돌, 자유와 기계의 공존과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예측 · 사적소유의 강화 · 정보 접근성의 생산력 이데올로기 · 행복담론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자유 미래 전망할 것이다.

2. 인공지능의 일상화와 논쟁

초등학생이 자기 방에서 혼자 숙제를 하고 있다. 부모에게 숙제의 질문인 ‘북한의 수도는 어디인가?’를 묻는다. 부모가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기 전에 지능형 개인 비서인 ‘누구’(NUGU)가 “북한의 수도는 평양입니다”라고 정답을 알려 준다. 그리고 평양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로는 ‘주체사상탑’, ‘금수산태양궁전’, ‘평양 개선문’을 제시한다. SK 텔레콤의 인공지능(AI)인 ‘누구’는 부모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제공하는 정보원이다. ‘누구’는 어린아이가 생각할 필요를 없애준다. 어린아이는 다른 것을 기웃거릴 필요도 없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 지능형 개인비서는 이용자의 음성 명령에 따라 일정 관리, 이메일 전송, 지식 검색, 식당 예약 등의 기능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미래의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Vehicle)는 연료를 언제 주유하고 어느 주유소에 갈지, 필요한 자동차 부품을 어느 상점에서 구입할지, 승객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Gal and Elkin-Koren, 2017: 309-310). 인간인 여러분의 도움 없이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또 애완동물 관련 알고리즘은 음식공급 사료통에 장착된 센서와 애완동물의 계절별 질병 데이터에 기반하여 애완동물에 부착된 센서를 동시에 연결시킨다(Gal and Elkin-Koren, 2017: 310). 애완용 사료가 떨어지게 되면, 알고리즘은 자동적으로 애완동물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사료를 주문하고 애완동물을 돌볼 것이다.

AI는 공기처럼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고 숨 쉬고 있다. AI는 인간이 영리한 소프트웨어(smart software)와 협력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구글의 지메일(Gmail)은 메일을 자동으로 분류한다. AI의 도움을 받은 필터링 기능은 기본, 소셜, 프로모션, 업데이트, 포럼 등으로 메일을 나눌 뿐만 아니라 스팸메일의 99% 이상을 차단한다. 웹 2.0 기술에 기반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지향하는 서비스인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도 인공지능을 사용한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은 헤어진 여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 관련 동영상이나 사진을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를 AI를 이용하여 차단한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인스타맵(Instamp)을 이용하여 사진 등의 정보를 검색·추가·삭제를 할 수 있다. AI는 구인·구직에도 이용되어 능력과 수준에 맞게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시켜준다. 대화형 AI 내비게이션은 음성만으로 목적지를 바꾸거나 가장 저렴한 주유소나 주차장, 화장실을 찾아주고, 사고 상황에 따른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도 AI는 데이터 수집·분류·공문서 작성·예방·예측의 영역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경찰청은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분석 시스템인 ‘클루’(CLUE, Crime Layout Understanding Engine)을 이용하여 범죄 분석 및 예측을 실행하여 미래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미국 남부네바다보건당국(SNHD, Southern Nevada Health District)은 식당의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SNS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공지능을 이용한다(최용인, 2018: 31). 미국 형사법원에서는 재범예측알고리즘인 콤파스(Correctional Offender Management Profiling for Alternative Sanctions, COMPAS)를 이용하여 가석방여부를 판단한다(최은창, 2017: 28-29). 미래에는 AI 공무원이 출현하거나 AI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지능정부의 시대가 도래 할 것이다.

기업체에서도 AI를 활용하여 거리비용을 줄이고 활발한 정보유통을 통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이효정·김기범·최연경, 2018). 가격 민감도가 상이한 고객 개개인에게 차별화된 가격을 제시하는 다이내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 기법, 사용자의 행동 패턴 · 사용자 간 관계 · 상품 유사도에 기반하여 알고리즘으로 고객의 취향과 선호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고 구매 결정을 도와주는 추천시스템, 컴퓨터로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에 따라 증권, 파생상품 등 자산을 거래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algorithm trading) 등이 있다. 이외에도 AI 알고리즘은 신용평가 및 심사, 투자자문, 준법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고 있다. 심지어 홍콩의 벤처투자 회사인 딥널리지벤처스(Deep Knowledge Ventures)는 ‘바이탈’(VITAL)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사로 임명하여 다른 다섯 명의 인간 이사와 똑같이 투자 결정에 참여하게 하였다(Wile, 2014.5.13.).

일상생활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쟁이 가능하다.

과연 인공지능은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자유를 확대시킬 것인가 아니면 위협할 것인가?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켜 인간의 자유를 증진시킨다는 옹호론이 있다(손현주, 2019: 324-325). 인공지능은 정보 과잉으로 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합리적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정보를 인간의 필요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함으로써 인간이 인식하지 못한 통찰력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인공지능은 누구나 쉽고 저렴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하게 하여 인간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디지털 자유주의를 실현하게 한다. 반면에 인간의 선택과 사유의 자율성을 인공지능에 맡김으로써 인간의 자유가 축소된다는 입장이 있다(손현주, 2019: 327). 무엇을 공부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어느 당에 투표할지를 인공지능이 결정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사라져 인공지능의 권위가 인간의 권위는 대신하게 된다.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인간은 자신의 의견, 사고, 감정이 인공지능에 의해 조작될 수 있고, 자율성을 상실하여 자율적인 인간의 존재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게 된다면 데이터와 정보에 의해서 인간의 미래는 결정될 수밖에 없게 되어 인간의 상상력과 의지가 약화되어 인간의 자유의 가치는 위협받게 된다.

둘째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똑똑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멍청하게 만드는가이다.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방대한 양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 실시간 정복 검색, 많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집단지성을 가능케 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지식을 체계화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찾는 ‘능숙한 사냥꾼’이 된다. 지능형 검색엔진과 한나절을 보냄으로써 수년에 쌓을 만한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다. 또한 인공지능은 감정과 직관에 의존하는 우리의 의사결정보다 일관성을 유지하고 인간의 오감을 넘어서는 감각능력과 인지능력으로 풍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

다. 그리하여 인공지능은 좀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과 정보획득 및 분석을 통하여 인간에게 사고의 확대와 효율성을 제공하여 인간을 더욱 똑똑하게 만든다. 이와는 반대로 디지털 혁명은 똑똑한 세대를 가장 멍청한 세대로 만든다고 한다. 마크 바우어라인(Mark 은 『가장 멍청한 세대(The Dumbest Generation)』 (2014)에서 오늘날 세대는 가장 좋은 학습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전 세대보다 더 형편없는 지적 수준·어휘력·작문능력·사고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혁명이 젊은이들에게 지적 확장 도구가 아니라 방해물이 된 것이다.

세 번째 논쟁은 ‘인공지능은 인간의 공동체의식과 사회의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와해하고 사회의 탈연대를 촉발할 것인가?’이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혁신에 기여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신하여 일함으로써 인간에게 노동으로부터 해방을 주기 때문에 인간은 더 많은 자율성과 여유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자원봉사, 창의적인 활동 등을 통해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헌신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일상화는 인간이 인공지능과의 공존을 배우고, 삶의 현장에서 실현함으로써 삶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다양성의 노력은 학벌, 성별, 인종적, 지역적 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사고방식과 행동을 보여주게 되어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다른 한편, 인공지능 활용의 목적은 최적화와 예측이다. 최적화는 개인이 사용하는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인에 가장 잘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고, 예측은 기계외의 다른 대상, 즉 선배, 이웃, 친구에 대한 의존성과 상호작용을 줄여 개인주의를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의 발달은 과학, 정치, 기술에 대한 포용성보다는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배경에만 관심을 갖게 만든다. 인공지능의 일상화는 우리가 살기 위해 집단·공동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이해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적 소유가 강화되고 개인주의가 더욱 활개를 치게 될 것이다.

3. 인공지능이 인간 자유에 끼치는 영향

인공지능이 갖는 인간 자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구조적 측면, 접근성, 그리고 인간 능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구조적 측면에서 인공지능은 제3의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정부와 민간의 융합을 가능케 함으로써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책 활동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황종성, 2017: 35). 또한 인공지능은 사회구조를 네트워크에서 플랫폼 조직으로 바꿀 수 있다(황종성, 2017: 34). 플랫폼 조직은 조직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동일한 플랫폼을 공유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을 크게 강화시킨다. 예전에는 교통신호제어기, 지하철 운행 등 개별 플랫폼이 분리되어 운영되었지만 인공지능은 이들 상호간의 연계를 증가시키고 집단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 인공지능은 플랫폼 조직과 제3의 거버넌스와 같은 구조적 변화를 통해 정부·시민·기업체의 협업모델을 지향하여 나쁘거나 혐오스러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증진시킨다.

둘째, 인공지능은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알 권리를 누리게 되어 개인의 디지털 자유주의를 실현하게 한다. 누구나 쉽고 저렴하고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 가능한 디지털 자유주의는 시민들이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정보 접근성은 시민의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켜 제한을 받지 않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인간 자유의 영역을 확대한다(Rainie, Lee and Janna Anderson, 2017: 35-37). 오늘날 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지나친 정보는 정보의 다양성이 아니라 정보과잉으로 합리적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에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방대한 분량의 정보를 인간이 수집하고 분류하는데 도움을 주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인공지능은 정보를 인간의 필요에 따라 명료하게 분류함으로써 실시간 의사결정과 인간이 보지 못한 다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은 최근의 정보와 광대한 정보에 근거하고 있어서 감정과 직관에 의존하는 인간의 의사결정보다 좀 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자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갖는 자유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기술결정론적·철학적·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해 볼 수 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이데올로기는 기술결정론적 관점과 깊은 관련이 있다. 기술결정론은 기술이 자체의 발전 논리를 갖고 있으며 사회변동의 주요 요인이라는 입장으로, 기술의 중립성과 기술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손현주·문만용, 2016: 153). 인공지능의 기술 결정론적 시각은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특성·기준이 공장, 시장, 정치, 사회일반으로 확대·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이 사회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믿음은 인간의 자유를 쇠퇴시킨다. 기술에 영향을 받는 사회나 미래를 상정하기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자유로운 상상력이 발휘되는 것이 쉽지 않다. 인공지능 거버넌스에서는 모든 것이 측정되고 0과 1이라는 비트로 양화된다. 인간 마음의 상태, 감정, 노동, 일, 활동 등이 모두 기록된다. 인공지능 거버넌스에서는 숫자로 통한 자기 인식인 양화된 자아(quantified self)가 지배적인 양식이 되어 정신, 직관, 자유의지, 자아를 인간의 지식에 추방하게 된다(한병철, 2015: 84-87). 왜냐하면 모든 것이 데이터와 그것으로부터 추출된 패턴과 상관관계로부터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양화된 자아에서는 인간의 특성이 데이터로 분해되어 인간 고유의 본질은 사라지고 진공상태에 이른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수치화함으로써 자신을 스스로 밝히고 고백하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자아를 지탱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야기인데, 이야기 대신에 숫자가 인간을 표현함으로써 자기 발견과 자기 인식에 이르는데 한계를 갖게 된다. 또한 인간의 활동을 나타내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는 축적되고 공개되어 자기 점검과 감시의 경향을 보여 인간 활동에서 윤리와 진실을 제거하여 자신 감시의 양상을 띠기도 한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자신이 감정과 의지보다는 드러난 숫자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 축적된 숫자가 행위의 기준이 되어 스스로 행위와 옳고 그름을 숫자에 맡기게 된다. 또한 알고리즘 기반 데이터와 의사결정은 인간을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존재로 변화시킨다. 알고리즘 기반 기술결정론적 시각은 인간 자신들이 선택한 이기적인 행동을 자신들의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그들이 행한 사기, 도둑질, 게으름과 같은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알고리즘의 탓으로 돌릴 경향이 높다.

알고리즘에 의한 자유의 종말에 대한 철학적 관점은 유발 하라리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유발 하라리, 2018: 81-134). 하라리에 의하면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권위는 인간의 자유보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더 신성시하여 개인의 느낌과 자유 선택에 대한 자유주의의 기반을 위태롭게 한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반영하고 모든 권위는 인간 개인의 자유의지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생명기술 혁명과 정보기술 혁명에 의한 빅데이터 알고리즘은 인간부터 자유의지의 권위를 제거하여 컴퓨터로 이동시킨다. 만약 인간이 무엇을 공부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어느 당에 투표할지 등을 인공지능이 결정하게 한다면 인간이 고유한 개체로서 인간 자신에 의한 감정과 직관이 사라지고, 인간 자신을 위한 결정이 결여되어 인간의 권위는 소멸될 것이다. 알고리즘의 발달은 인간의 마음, 감정 등을 인간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어서 모든 사회제도와 인간은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된다. 생체측정 데이터와 컴퓨팅 능력이 결합하여 실현되면 알고리즘이 인간의 욕망과 의사결정을 해킹할 수도 있다. 알고리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자신의 의견과 감정이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감정과 세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율적인 주체로서의 인간의 존재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하라리는 인간만이 보유하고 있는 자유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미래와 인간의 미래 행위는 결정론에 빠지게 되어 알고리즘이 자유의 가치를 위협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셋째,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알고리즘이 인간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으면 자유주의를 크게 훼손하게 된다(Dan, 2017.10.9.). 개인적 자유와 인간의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유주의에서 알고리즘 기반 자동화는 인간의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어 실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유무는 인간의 개인적 자유와 기회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인공지능거버넌스는 일반 노동자, 경제적 활동을 못하는 실업자와 인공지능을 소유한 소수의 자본가와의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확대한다. 소수의 엘리트와 자본가가 경제적 활동의 생산물을 독점하면 자유주의는 쇠락할 수밖에 없다. 권력을 독점한 소수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자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과두정치가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민주적 선거도 쇠퇴하고 개인의 자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 자동화에 따른 로봇의 인간 노동의 대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편적 기본 소득의 도입을 주장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개인들은 자신들의 원하는 가치를 추구하게 되어서 개인의 자유가 증진될 수 있지만 빈부격차가 커짐으로 인해서 민주적 정치행동

은 제한적이게 된다.

개인의 자유는 인본주의의 토대이다. 인본주의가 갖는 특성은 모든 인간은 고유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자신만의 개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특히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은 이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사고이고 이러한 합리성이 인간이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과 자율성을 부여받는 근거가 된다. 만약 알고리즘이 이러한 결정권과 자율성을 인간 대신에 행할 권리를 갖게 되면 자유주의 정치는 위협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한 예측적 모델링은 인간성을 훼손하고 인간의 판단을 쓸모없게 한다. 알고리즘의 속성인 기계학습과 심화학습의 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성을 위하여 중앙 집중적 구조를 갖게 된다. 중앙 집중적 구조는 중앙 집중적 통제를 가능케 하고, 다양성과 새로운 창조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게 된다.

4. 결론: 인간 자유의 미래에 대한 합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핵심 가치인 자유에 부정적·긍정적 측면 모두에 영향을 미쳐서 새로운 형태의 인간 사회를 만들어 간다. 먼저 미래의 인간사회는 알고리즘 사회가 될 것이다. 알고리즘 사회는 데이터주의(dataism)라는 중심적인 이데올로기를 그 특징으로 한다. 데이터주의는 데이터를 조정하는 능력과 데이터화의 규모가 커지면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알 필요가 없고 단지 데이터가 말해주는 결과만 알면 되기에 충분한 데이터만 있으면 인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서 전통적인 과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입장이다(Anderson, 2008). 데이터는 인간의 감정과 이데올로기를 여과할 수 있는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시각을 제공한다. 그리하여 데이터는 20세기 통계학이 가졌던 위상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는 우리에게 21세기의 예측과 통찰력을 준다(Brooks, 2013.2.4.). 일체의 사회관계는 본질적으로 데이터와 기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인간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따라서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컴퓨터 코드를 쓸 수 밖에 없고, 인간은 점점 더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되어 인간의 독립성을 사라지고 인공지능을 우상화하는 경향이 심화된다.

둘째, 인간의 자유는 기계의 공존과 같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해 간다. 인간 자유의 역사는 전근대사회에서 인간의 자유와 자연의 대립이었고, 근대사회에서는 자유와 권위의 충돌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사회에서는 인간이 기계를 단순히 대상이나 도구가 아닌 자율적인 시스템이나 기계적 인격체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담론 안에서 새로운 사고와 행동 양식을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새로운 혁신이나 돌발적인 사상보다는 안정적인 미래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은 불확실성을 줄여주어 기존의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미래사회가 지배할 것이다.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은 확률에 근거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인간이 변화를 주도하는 이유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감정과 이성

의 균형을 적당히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의한 예측은 인간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대안 개발을 억압하는 계기로 작동하게 되어, 인간의 상상적 영역(imaginary domain)에 접근하는 자유가 제한된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삶의 존재방식/ 삶의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이 현저히 축소될 것이다.

넷째, 사적 소유가 강화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집단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 소유가 더 강화된다. 또한 고도화된 인공지능의 기술은 고도화된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의 자본에 대한 독점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그렇지 못한 계층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약자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에 의한 개인맞춤형 욕구와 욕망에 대한 충족은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게 되면서 개인주의 강화되어 집단적 행동을 통한 계급갈등의 완화나 사회운동을 통한 부의 불평등 해소에 대한 노력을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지배적인 담론인 정보 접근성은 생산력 향상의 이데올로기로 여전히 작동할 것이다. 정보 접근성은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탈규제의 요구 속에서 국가의 개입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디지털 자유주의’의 핵심 개념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디지털 자유주의의 유토피아가 창출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된다. 정보 접근성 담론은 무한 가치 증식의 욕구를 가진 자본에 의해 시장에서 끊임없이 독점 지배를 추구하는 방편으로 사용된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방해하고 지나치게 인공지능에게 의존함으로써 해악을 끼칠 경우 이것 또한 정상적인 생활과 사고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인간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다. 만약 인간의 자유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미래와 인간의 미래 행위는 결정론에 빠지게 되어 과학이 자유주의와 사회의 기초인 자유의 가치를 위협할 것이다.